

4.16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기본프로그램 매뉴얼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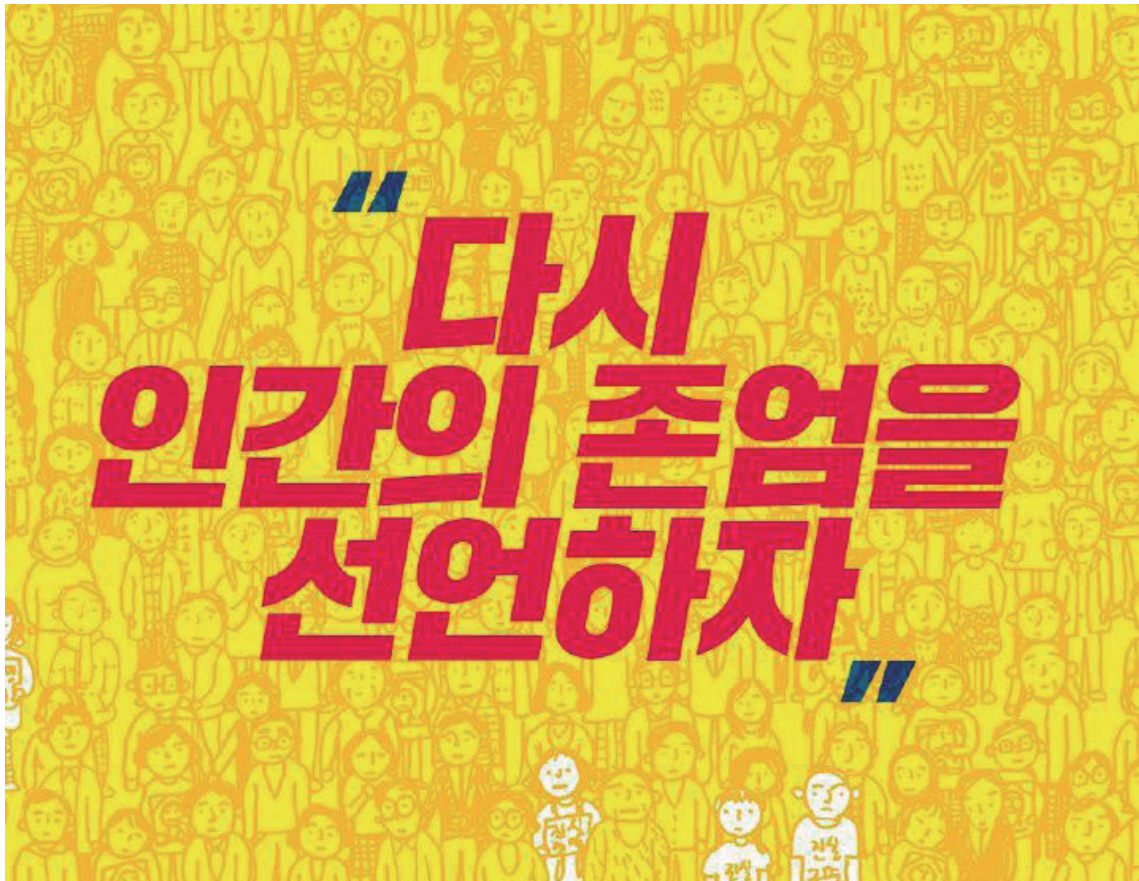
1. 이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이렇게 진행해보세요.
3. 이런 점을 미리 고려하세요.
4. 이렇게 결과를 정리해주세요.

1. 이런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풀뿌리토론은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와 조건에서 세월호 참사를 겪었습니다. 각자의 경험에는 416인권선언의 주요 키워드인 존엄, 안전, 인권, 선언 등이 이미 있습니다. 풀뿌리토론은 각자의 경험과 기억을 생생한 말로 나누며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권리들을 걸어 올리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와 그동안 반복되어온 재난, 참사 등에서 벗어나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달라져야 할 것을 확인하고 토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풀뿌리토론을 통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촉발되고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 세월호 참사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참사를 겪으며 우리가 느꼈던 억울함, 분노, 슬픔 등의 기억을 '부당한'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다시 써봅시다. 우리가 침해 당한 권리들이 분명해질 때 세월호 참사의 과제도 분명해지고 우리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달라져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하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인간의 존엄'을 통해 토론해봅시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통의 감각을 확인하고, 각자의 경험에 깃든 다양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각자의 시선으로 마주했던 '4.16'의 의미를 공통의 경험으로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마다 제안하고 싶은 바를 함께 선언해야 할 '인권'의 말로 제안해주세요. 토론을 거치며 권리들이 엮이고 연결되어, 모두의 약속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 존엄, 안전, 인권, 선언의 의미가 각자의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 풍부해지고, 앞으로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극과 영감을 얻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쟁점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욱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소중한 실마리일 것입니다.

2. 이렇게 진행해보세요



기본 순서

1) 추모의 시간 (5')

|| 함께 묵상해주세요

2) 416인권선언운동 소개와 풀뿌리토론 제안 (10')

|| 참여자들에게 416인권선언운동의 취지를 알려주세요.

3) 풀뿌리토론 프로그램 진행 (80')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수칙을 공유해주세요.

|| 제시된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주세요.

1. “세월호 참사를 떠올릴 때 나의 느낌/감정은 oo이다. 왜냐하면 ~.”
2. “세월호 참사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던 장면/현상/문제는 oo이다.”
3.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 인권이다. 2번에서 말한 문제들을 바꾸기 위해서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ooo할 권리이다.”

4) 마무리 (10')

||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갈무리해주세요. 참여자들의 소감을 듣거나 후속 활동에 대한 제안을 받아주세요.

|| 함께 권리 풍선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주세요.

준비물 및 사전 체크 사항

- 모둠별 자리 배치
- 포스트잇(7.6cm*7.6cm 이상) 충분히
- 화이트보드, 보드마커, 지우개 등
- 기록자를 미리 정해주세요. 토론 진행 중 기록이 어렵다면 휴대폰이나 녹음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 폴뿌리토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인권선언운동의 취지를 알리는 영상, 세월호참사를 인권으로 말하는 영상 등이 있으니 활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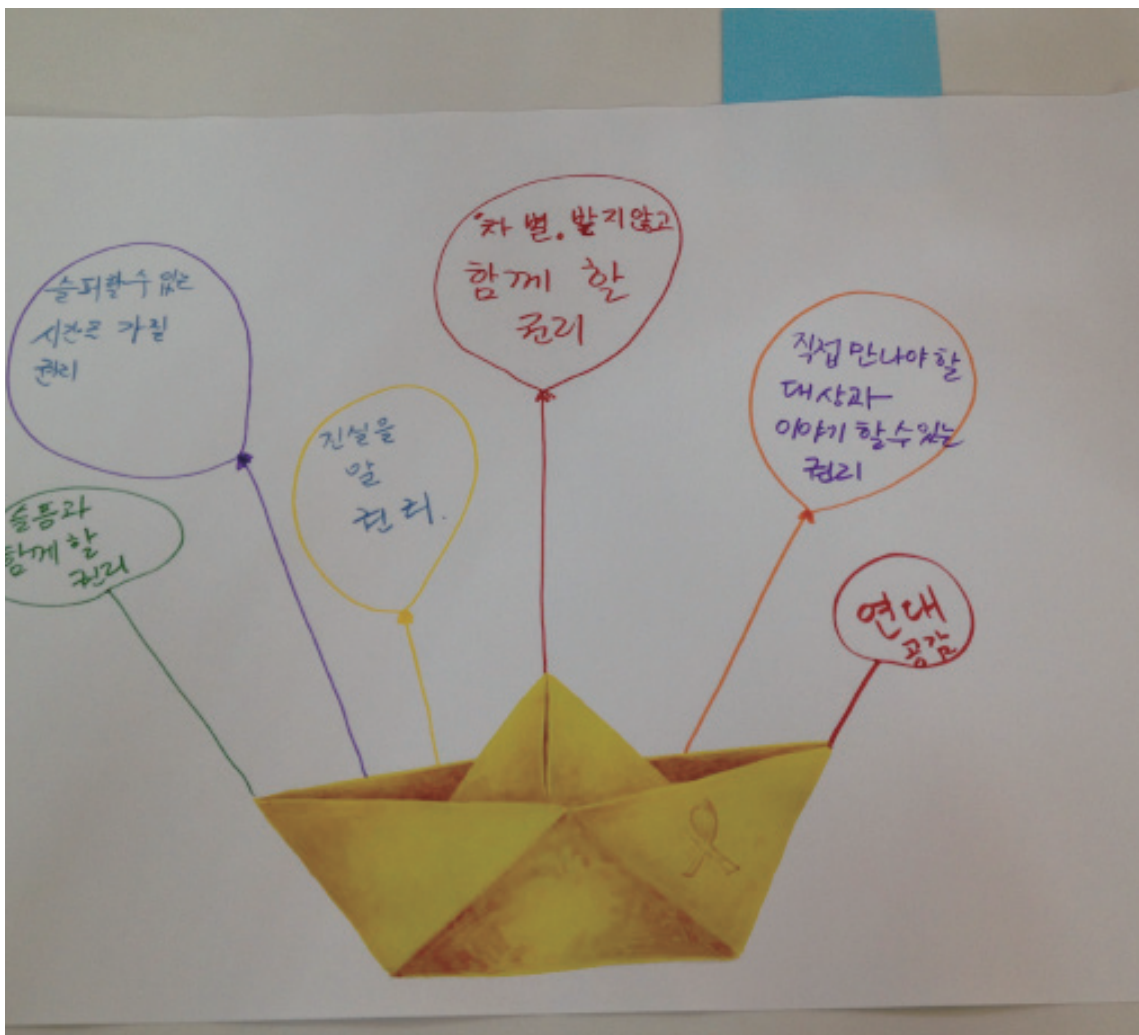
참여자들과 나눌 질문 3가지

1. “세월호 참사를 떠올릴 때 나의 느낌/감정은○○이다.왜냐하면 ~.”
2. “세월호 참사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싶었던 장면/현상/문제는○○이다.”
3.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 인권이다. 2번에서 말한 문제들을 바꾸기 위해서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할 권리이다.”

진행방식

질문은 한 번에 하나씩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포스트잇에 적는 시간을 가진 뒤 모둠 안에서 돌아가며 발표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공유가 다 끝난 뒤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다시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 질문에서는 하나 이상의 답을 적고 싶은 참여자가 있을 수 있으니 포스트잇을 여유 있게 준비해주세요. 첫번째 질문에서 자기소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충분한 토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해주세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토론까지 모두 마치고 나면, 노란종이배 이미지를 활용해 참여자들과 함께 권리풍선을 만들어주세요. 권리풍선을 들고 인증샷도 찍어주세요.



질문 해제

1. 이 질문의 의도는 인권선언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말문을 틀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분노’든 ‘무기력’이든 ‘슬픔’이든 ‘미안함’이든, 서로의 감정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세월호 사건이 공통의 경험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자신이 떠올린 느낌과 감정의 기원을 떠올려보면서 자연스럽게 2번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이 질문은 세월호가 단순 사고가 아닌 인권 침해의 문제임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참사 당일부터 지금까지 보거나 듣거나 겪은 일 중에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문제였는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꼭 특정 장면이 아니어도 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러 사건, 과정 등 본인이 겪거나 봤던 모습들 중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나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현상 등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요.

예시)

- 아무도 구조하지 않는 모습;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도 구조하지 않고 있었다.
- 안국역 사거리 최루액 살포; 참가했던 집회 중에 가장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그렇게 최루액 많이 쓰는 건 처음 봤다.
- ‘찢어진 대자보’ ; 세월호 참사에 쏟아졌던 증오와 반목을 목격했음. 학내 세월호 관련 대자보가 찢겨지고, 막말이 담긴 포스트잇이 대자보에 붙었음.

3. 이 질문은 4.16인권선언에 담을 수 있는 아이디어와 구체적 표현을 함께 찾기 위한 질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바뀌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것의 기초가 될 인간의 권리들을 각자의 구체적인 말들로 제안해 달라고 요청한 후 서로 제안한 권리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나는 왜 이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맥락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눠주세요.

3-1) 인권이라고 했을 때 가령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같이 법전에 나올법한 용어를 먼저 떠올리게 되기도 쉬운데 그러면 사람들의 상상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

에게는 ‘표현의 자유’란 단어보단 ‘말대꾸했다고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을 권리’가 그이들의 삶에 더 가닿는 말인 것처럼, 4.16인권선언에 들어갈 권리를 찾는 작업도 앞서 1, 2번 질문에서 답했던 각자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자기 입에 붙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3-2)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연결된 권리들이나, 해당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권리들이 더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선 어떤 사회적 변화가 필요할까요? 혹은 다른 어떤 권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라고 물어보면서 논의를 심화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2번 질문에서 “‘가만히 있으라’고만 했던 선내 방송”이 제시됐을 때, 3번 질문에서는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권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안내하기 전까지 아무 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권리”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정책이나 제도를 바꿀 권리” 등의 이야기들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강요받아온 현실을 떠올리며 “대들고 따질 권리”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기 위해 모여서 말할 권리”와 같은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3) 필요한 권리를 적다 보면 ‘좋은 건 다 권리’인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 바라는 것을 그냥 모아놓으면 그건 희망사항이거나 이상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권리는 각자의 입장과 맥락 속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진행자가 적극적으로 질문을 건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제안된 권리 중 가웃겨려지는 권리들은 없나요? 또는 다른 관점에서 짚어보면 좋을 권리들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 “국민의 일정 수 이상이 동의하거나 서명하면 무조건 따를 권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만 어떤 제도 등을 정하는 게 맞는 것일지 같이 고민하고 토론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결론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충분히 잘 듣고 나서 따로 결과를 정리해주세요.

3. 이런 점을 미리 고려하세요

풀뿌리토론 참여자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느끼고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수칙을 미리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토론 수칙은 토론 구성원이 주어진 시간 안에 이야기를 잘 나누기 위해 함께 지키면 좋은 몇 가지 사항들입니다. 물론 수칙은 수칙일 뿐이지만, 이를 통해 416인권선언의 주요한 기초가 될 모두의 경험과 생각들이 잘 모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수칙을 참고하세요.

- ☞ 토론을 진행하는 진행자의 질문/요청을 잘 숙지한 후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 토론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고루 들을 수 있도록 너무 자주 또는 너무 길게 이야기하는 분이 없도록 미리 발언 시간이나 횟수를 정해도 좋습니다.
- ☞ 토론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스스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메모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 ☞ 의견 발표 전에, 포스트잇에 발언할 핵심 주제어(키워드)를 적고, 제시합니다.
- ☞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합니다. 토론 중 스마트폰 사용은 자제 바랍니다.
- ☞ 토론에 참여하는 다른 이의 생각이 자신과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4. 이렇게 결과를 정리해주세요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풀뿌리토론 결과가 잘 모일 때 우리는 함께 416인권선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는 동안 기록자는 아래 빈칸을 활용해 메모를 해두시고 토론이 모두 끝난 후 결과를 정리해서 416인권선언 홈페이지의 풀뿌리토론 게시판(http://416act.net/decl_board)에 올려주세요. 풀뿌리토론을 마친 후 함께 만든 권리포스터와 참여자들의 사진을 한 장 이상 함께 올려주세요.

* 토론에 참여한 분들의 이름과 이메일주소는 416declaration@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추진단이 아니더라도 이후 인권선언 추진, 제정의 과정을 함께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 언제_

* 어디에서_

* 누구와_

(어떤 공동체에서 함께 했는지, 토론 참여 인원은 몇 명인지)

* 기록자

* 만약 기본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풀뿌리토론을 진행했다면 프로그램도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풀뿌리토론 결과>

- 단어 중심보다는 왜 그러한 내용이 제기되었는지 맥락과 이유를 꼭 함께 써주세요.

1. 풀뿌리토론에 참여한 분들은 세월호 참사를 어떤 감정으로 겪었나요? 각자의 경험을 표현한 키워드를 적어주세요.

2. 풀뿌리토론에 참여한 분들과 짚어본 문제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걸 좀 아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다 등 참여자들과 함께 찾은 장면이나 현상, 문제의 키워드와 그 내용을 적어주세요.

3. 풀뿌리토론에 참여한 분들은 어떤 권리들을 제안했나요? 참여자들 각자가 적은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안하게 된 이유나 각자의 이야기도 전해주세요. 제안된 권리 중 가뭇겨려지거나 찬반 토론이 됐던 권리가 있다면 토론 내용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소감 나누기>

- 풀뿌리토론에 함께한 이들과 오늘 토론의 소감을 나누주고 기록에 남겨주세요.

- 기본 프로그램이나 후속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추가 토론이 필요하거나 간담회, 인권교육 등에 대한 요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